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3월 구역강사 훈련 모임
3월 구역강사 훈련 모임은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 성경공부 안내(봄학기)
봄학기 성경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목요일 아침, 토요일 아침)
교재 - 만화 교회론(백금산) 시작: 3월 7일(목)
- 뉴욕 밀알 화요모임 안내
3월 5일(화) 저녁에 뉴욕 밀알 화요예배 모임에 우리 교회가 참여합니다.
- 친교 안내
오늘 친교는 베이사이드 구역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 친교는 플러싱 구역에서 준비합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3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3/03	섭	최태신	베이사이드	한순자
3/10	최홍만	노마숙	플러싱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지하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5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5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예수님의 기준 - 보복심
본문: 마태복음 5장 38~48절

기도제목: 1.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2. 원수를 사랑하기 앞서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인간의 본성 가운데 보복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건드렸을 때, 자신을 무시했을 때, 그것을 되 갚으려려는 마음이 보복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보복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수를 인정하신 것으로 해석하고 사용하였습니다.

1.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 - 악을 선으로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수를 허락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재판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재판관 담당 재판관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해야 했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피해를 주었다면 책임지고 갚아라! 어찌보면 **악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마치 복수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으로 변질되어서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기준은 "악을 또 다른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2. 보복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게 되면, 참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되 갚아 주려합니다. "두고 보자! 갚아 주겠다!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하고 건드리면, 그대로 앙갚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건드리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장 보복할 수 없으면, 가슴에 울어두고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까지 기다리고 복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언제나 남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주는 사람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이로 인해 복수와 보복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셨고, 그 해결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오직 이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한쪽이 악을 행하는 쪽을 향하여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음을 아셨습니다.

3. 어려운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들을 그냥 참고 용서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 맥 빠지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마음속으로도 간음하지 말라! 친구에게 화를 내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산상설교의 메시지는 우리들이 지키기가 힘든 말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힘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우리의 온전함은 질적으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주님께 자라는데, 이와 같은 성장은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저는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목표로 잡고 그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는 말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목표까지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멀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자라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만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 주변의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이와 같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고 그와 같이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 헌금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3월 행사안내

5일(화) - 뉴욕 밀알 화요 모임, 7일(목) 성경공부 시작
10일(주일) - 구역강사 훈련 모임, Daylight Saving Time Starts,

교회 지원단체

뉴욕 밀알 선교단, 주님의 식탁, 뉴욕 농아인 교회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순회 선교	우간다	브라질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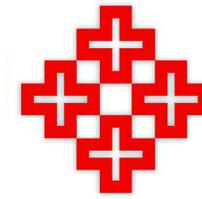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호진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9년 3월 3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기도 사무엘상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기도: 최태신 집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32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8번(시편 19편)	
찬 송 Hymn	344장	
기 도(Prayer)	송 섭 집사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5장 38~48절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설 교 Message	예수님의 기준 - 보복심	토요 새벽기도회
▲ 헌 금 Offering	71장	호세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 찬 송 Hymn	505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